

# 아주대의료원소식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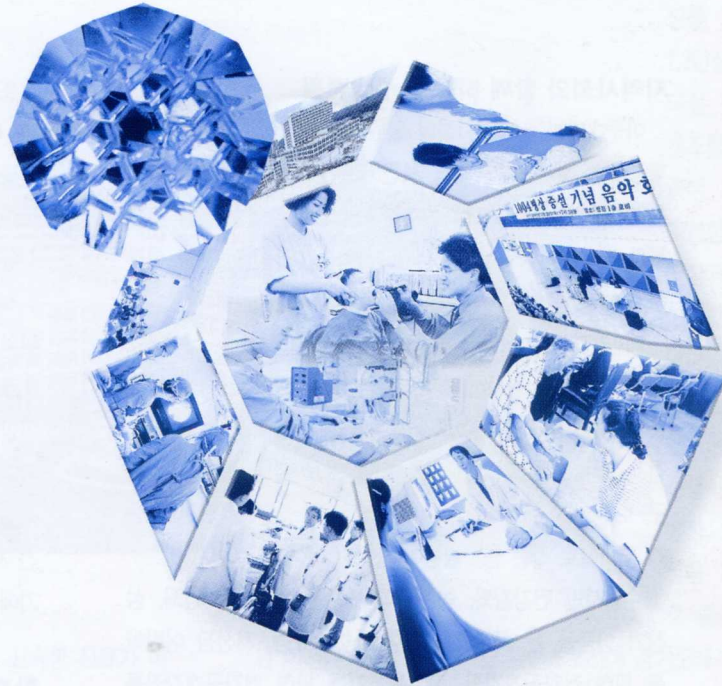


권 제 80호 / 발행일 2001. 9. 1 / 발행인 겸 편집인 박起賢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 목 차 •

- 2 개원 7주년 특집 I 아주대병원 7년
  -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주대병원
- 8 신인재 칼럼
  -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 9 나의 연구 나의 테마
  - 난소암의 초기치료를 위해
- 10 진료교실
  - 팔 굳고 몸 균형 못 잡는 파킨슨씨병
- 12 인제병원
  - 간 이야기
- 16 개원 7주년 특집 II 전문진료센터
  - 암센터
  - 소화기센터
  - 심혈관센터
  - 신경센터
- 20 잘못된 건강상식
  - 유방수술을 하면 수유를 못한다?
- 21 AMC NEWS
- 26 건강 Q&A
  - 사경
  - 사마귀
- 28 잊지 못하는 환자
  - 노인은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지
  - 몰라서 아파하지 않는다
- 29 내기 꿈꾸는 의료인
  - 내가 가야 할 길
- 30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 세월이 흘러도
  - 변함없는 진정에 감사합니다
- 31 의료장비 소개
  - 수지로실
- 32 아주대병원 100% 활용하기 환우회
- 34 응급처치, 이럴뎨 이렇게
  - 별에 쓰였을 때
- 35 진료시간표

## 사파이어의 푸른 안식처



9월의 탄생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덕망과 자애를 뜻하는 돌로, 예로부터 치료의 힘을 가진 돌로 여겨졌습니다.

이 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옛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깃든 9월에 아주대병원은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사파이어의 푸른 빛을 닦으려는 시간이 어느새 7년이 되었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게끔 했던 시간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미움마저 용서해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7년간 아주대병원을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대병원은 아픈 이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7주년 기념 특집호

##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아주대병원이 올해로 개원 7주년을 맞이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지역의료인을 위한 병원, 의학발전을 위한 병원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내온 지난 7년을 정리해 본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코자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와 지역주민 대상 무료 건강공개강좌, 각종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안성군 고삼면 농촌지역 하계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화성군 백미리지역에 무료의료활동 및 일손 돕기 행사, 수해지역 무료 의료봉사, 취약전 아동 무료 시력 검사, 당뇨검사, 암 보호자를 위한 무료 상담실 운영, 팔달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정 무료진료 등 각 부서별로 작은 봉사활동이 끊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민 건강강좌,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순회강좌, 성장기 아동을 둔 학부모를 위한 소아야뇨증, 저신장 어린이를 위한 건강공개강좌, 장루보호자를 위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당뇨병교실, 알레르기·기관지 천식교실, 출산준비교실, 아주난청 재활교실 등 환자와 보호자에 도움을 주는 질병교실 이외에도 재활치료, 루푸스, 고셔, ALD, 직장암, 유방암 등 환자 및 보호자 모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진정으로 쾌유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P. 6 참조).

또한 내과부,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임상병리과, 응급의학과, 의과학연구소 등 각 임상과별로 정기적으로 지역 의사 집담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병(의)원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전달 및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은 2001년 3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2002 월드컵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응급의료센터는 수원시와 함께 수원시민 안전의식 향상 및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착수하여 24시간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수원을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 환자중심의 진료 서비스

아주대병원은 개원당시부터 자동처방전달시스템(Ordering Communication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의사가 처방을 내면 원내 전 부서로 자동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수작업을 줄여 환자 간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급환자의 경우도 각종 검사결과 및 병력사항



이 즉시 전달하게 함으로써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접수 및 수납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줄이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외래 각 층마다 수납창구를 증설하는 한편, 전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진료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또 퇴원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퇴원환자를 정상 퇴원할 수 있도록 휴일근무자 2~3명을 추가 배치하였다.

진료예약과 관련해서는 전화예약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한 통화로 진료예약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거주지역이 상당히 넓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간호부 소속 총 6명이 근무하는 전화예약센터는 재진 예약은 물론 초진 환자 진료예약과 예약변경, 퇴원환자 외래진료 예약, 초진 예약 환자의 진료예약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의뢰센터는 지역 병(의)원에서 의뢰된 환자를 전담하여 일괄처리 해주어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전문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뢰된 환자를 진료후에는 지역병원으로 다시 회송함으로써 진료기관의 역할 구분을 실질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대학병원 입원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환자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수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실명제, 원무팀 수납담당 실명제를 시행하여 환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가정간호제도, 초진환자창구 운영, 전일퇴원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환자의 진료편의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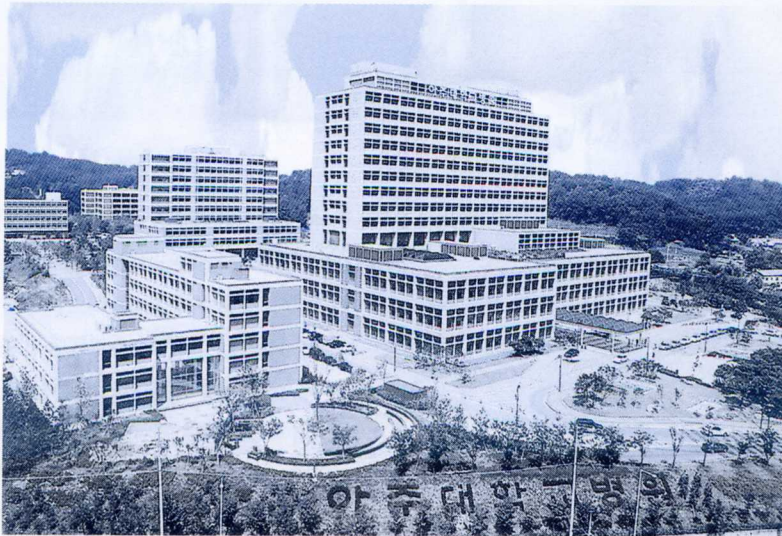
### 편안하고 깨끗한 진료공간

시설면에서 서비스 개선노력도 다양하다. 우선 병원은 올해 초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100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2인실 일부를 4인실로, 회의실 및 휴게실을 병실로 개조한 것으로, 상급병실을 줄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수의 병실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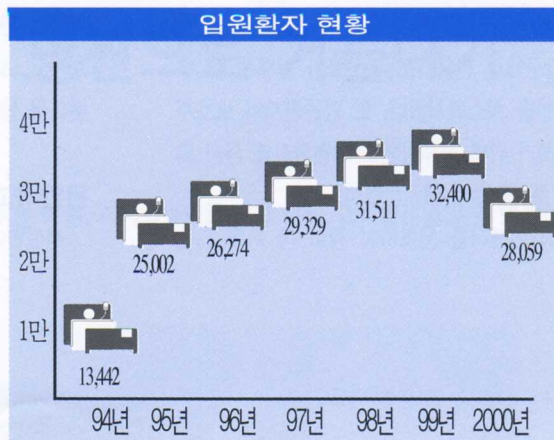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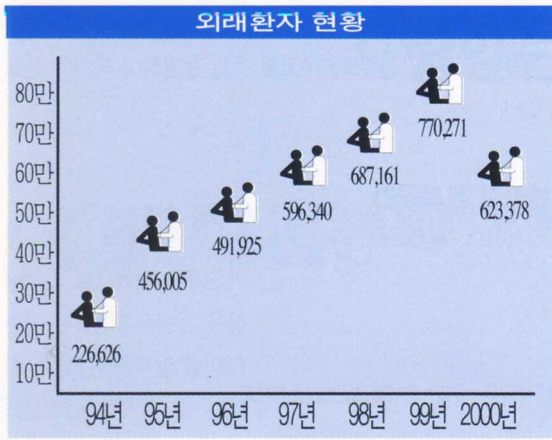
이중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16병상에서 26병상으로, 신생아실을 29병상에서 40병상으로, 내과계집중치료실을 14병상에서 12병상으로 증설한 것과 외국의 별

관 이전에 따라 병원 6층을 전면개조하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문소아병동을 새롭게 문 열어 해당 임상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좀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것은 3차 의료기관이자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코자 했던 조치였다.

심장혈관센터,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안과 등 대부분의 임상과가 진료공간과 검사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집중



그림으로 보는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실적 (단위 : 명)



적이고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과 낮병동이 외래 진료공간과 가까운 3층으로 이전했으며, 재활의학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와 외래 공간을 확장하여 환자와 내원객들을 위한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장례식장 문화에 발맞춰 장례식장 전체를 전면 재단장하였다. 장례식이 더 이상 고생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도록 100평에서 16평까지 다양한 평수의 장례식장을 구비하였으며, 내부장식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원목 재질과 대리석, 우아한 톤의 벽지로 마감하여 장례식장 전체를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마감했다. 뿐만 아니라 개원당시부터 장례용품점, 식당, 매점 등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장례를 치루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식장의 부조리로 인한 시비거리를 없앨 수 있었다. 이처럼 아주대병원은 환자 진료 편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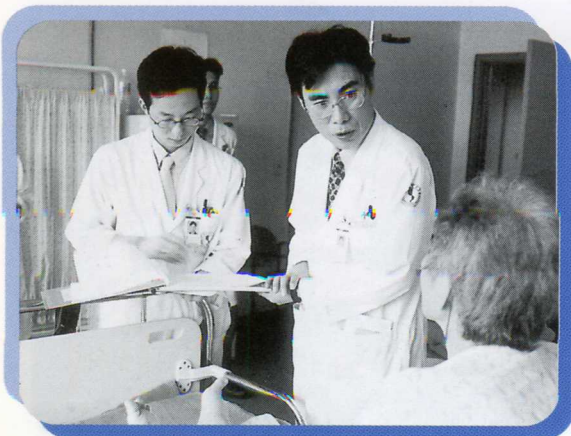
아주대병원은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유능한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개원하자마자 경기도에서 혹은 국내,외에서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새로운 치료방법, 고난위도의 기술이 요하는 각종 내시경 수술, 장기이식 수술, 유전자치료법 등의 좋은 치료성과(표1)를 거두어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로부터 탄탄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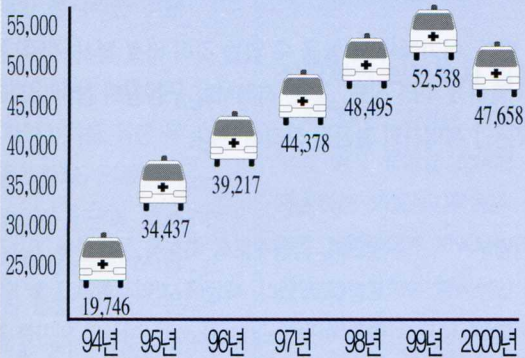
또한 개원당시 경기남부지역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이자 대학병원으로 각 임상과별로 세분화된 전문진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과거 서울편중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바꾸어 놓았으며, 외래에 유전학클리닉, 통증클리닉, 유방클리닉, 학습 및 발달장애진료클리닉을 개설하는 등 특수클리닉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진료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진료의 전문화, 쾌적한 의료환경, 앞선 진료서비스로 2000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외래·입원환자, 수술실적, 응급실 내원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화기내시경 10만건 돌파, 조혈모세포이식 200건 돌파, 체외충격파쇄석술 1,000례 돌파,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1,700례 돌파, 기관지내시경 4,000례 돌파 등 각종 검사·치료 건수와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의료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진료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아주대병원은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사회사업기금을 마련했다. 아주사회사업기금은 매월 1구좌당 1,000



응급실 내원환자 현황



12,652

2000년

원칙 기증하는 것으로, 2001년 8월 현재 아주대병원 교직원 2,823구  
 좌와 외부 기증, 바자회 등을 통한 기금마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아주대병원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환자의 입장에  
 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해결코자 부단히 노력하여 왔  
 다. 병원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환자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1〉 아주대학교병원의 임상성과

- 1994. 3 개심술 성공
- 1997.11 난자내 정자 미세주입술 시술 성공
- 1995. 3 국내 최초로 고서질환에 호소대체법 시행
- 1995.4~7 간이식, 신장이식, 자가골수 이식술, 동종골수이식술 성공
- 1995. 8 아주대병원 첫 시험관 아기 탄생
- 1995. 8 국내 최초로 무릎 연골이식술 성공
- 1996. 1 난치성 간질환자에 고난도 수술요법(M.S.T) 성공
- 1996. 3 세계 최초로 유문부에 인공도관 삽관술 개발
- 1996. 4 뇌종양질환 방사선캡술 삽입술 성공
- 1996. 5 관절연골 재생술 시행
- 1996. 7 국내 최초로 신경아세포종에 조혈모세포이식술로 치료 성공
- 1996. 7 세계최초로 중앙경계표식자를 이용한 뇌종양 제거술 개발
- 1996. 8 세계최초로 베타병의 원인 가설중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가능성 발견
- 1997. 4 경기도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차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
- 1997. 7 혈청검사를 통한 위암진단법 개발
- 1997. 8 갱년기 질환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 실시
- 1997.11 홀미움-166을 이용 골반내 재발 종양 치료 시행
- 1997.12 미국병리학회 정도관리인증 획득
- 1998. 2 신생아 난청 조기발견 체계 구축
- 1998. 2 동양 최초로 SPECT/PET 감마카메라로 양전자단층촬영 시행
- 1998. 3 전립선염의 원인을 배뇨장애에서 찾는 이론 제시
- 1998. 5 내시경을 이용한 비루관 폐쇄증 시술
- 1998. 5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신경합병증 진단 위한 새로운 문진표 작성
- 1998. 6 폐포단백증환자 전폐쇄술 성공
- 1998. 7 기미, 한관증에 레이저와 약물 병용 치료법 개발
- 1998. 7 세계 최초로 관상동맥 혈류속도에 따른 측정 평가 방법 개발
- 1998. 8 배뇨장애 새로운 이론 제시
- 1998. 9 홀미움-166 이용한 관상동맥 재협착술 시행
- 1998.10 재발된 자궁내막증에 경화술 개발
- 1999. 2 국내 최초로 한국인 비만기준 발표
- 1999. 4 기미, 레이저 치료와 화학박피술 병행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
- 1999. 5 노인성 골질환 골고형제 주입시술 실시
- 1999. 6 슬관절을 살린 동종골 이식술 성공
- 1999. 7 세계최초로 GAD단백질, 당뇨병 주요유발 인자임을 증명
- 1999. 7 세계 최초로 수정란이 착상되는 인공자궁 초기기술 개발
- 1999. 7 국산 임플란트 공동연구 개발 및 시술
- 1999. 7 홀미움-166을 이용한 간암치료 시행
- 1999.10 변이단백질에 의한 새로운 발암기전 규명
- 1999.10 난청유전자 발견
- 2000. 2 COX-2 효소가 위암발생 초기단계부터 관여 증명
- 2000. 2 휴대용 방광 내압측정기 개발
- 2000. 4 체장염 발생에 자기면역반응이 관여 증명
- 2000. 5 어지럼증환자를 위한 전정재활치료 개발
- 2000. 5 스타틴제의 골밀도 증가효과 규명
- 2000. 7 율스병 진단 유전자칩 개발
- 2000.10 교수/연구여건 국내 2위
- 2000.11 동양권 최초로 한국인 3차원 인체영상 제작 착수
- 2000.11 환삼덩굴 꽃가루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개발
- 2000.11 라미부딘 치료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종의 변화 밝혀
- 2001. 1 위암 환자의 보조항암치료와 TS 효소 고발현 상관 없어
- 2001. 8 자궁내막증 환자의 불임원인으로 자궁내막폴립 규명
- 2001. 8 암에 대해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수상돌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주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모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봉사. 아주대학교병원은 의료서비스로 부터 소외되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료, 교육,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유도, 문화행사의 공간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왔다. 아주대병원 개원 후 7년간 지역사회 활동을 정리해 본다.

올해로 벌써 아주대학교병원이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지 7년째가 된다.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부속 병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동안,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해 본다. 대학이 인재를 모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며,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봉사의 단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부속병원의 기능이 최상의 연구와 진료, 교육,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미래학자들은 곧 산업사회의 종막과 탈 경제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정보혁명이라는 제3의 물결에 이어 불운테리즘(voluntarism)으로 대표되는 제4의 물결이 밀려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발적인 서비스 활동이 인간의 중심활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학병원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 축에 서겠다는 의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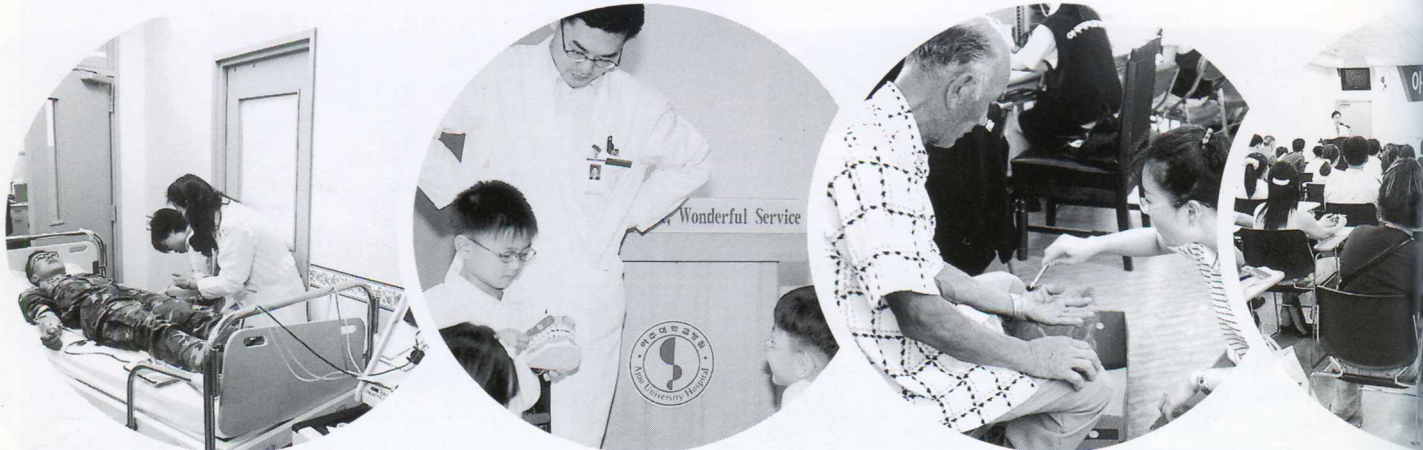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communitiy)의 개념에는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의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동체로서 사회적 동질성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할 때 이는 단순한 이웃(neighborhood)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할 때, 역시 일정부분 지역성(locality)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능적 측면의 공동체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도 결국, 공동체 사회의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힘 기울여

아주대병원은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질병에 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병원이 개원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각종 성인병을 비롯한 일반 질환의 교육에서부터 당뇨나 알레르기 교육, 정신장애인, 분만교실, 장애인의 사회재활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농·어촌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학병원의 기능이 최상의 연구와 진료,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주대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건강공개강좌, 의료봉사 활동, 지역의사 집담회, 호스피스 바자회, 자원봉사자 활동, 혈소판 헌혈 캠페인, 문화공간 제공 등의 활동들도 공동체 사회의 건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의 의사들을 위해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집담회를 가져 지역사회 보건의료기술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의료봉사 활동 전개**

아주대학교병원은 의료의 사각지대나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충북 진천과 경기도 안성지역의 봉사를 시작으로, 매해 심장검진, 수해지역, 농민, 낙도의 주민, 양로원이나 노인회, 고아원 등의 국내 진료 뿐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해외진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의 문제해결 노력**

또한 아주대병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스피스 바자회, 사랑의 열매 달기나 동전 모으기 운동, 혈소판 헌혈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소외된 이웃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 있다.

현재 본원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나오는 자원봉사자가 330명 가량 된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도 자원봉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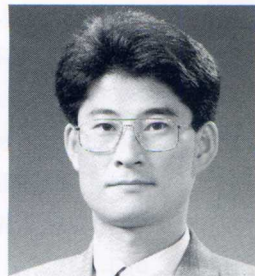
**편안한 휴식처와 문화공간 제공**

이외에도 아주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촉발하는 문화 행사의 형태로, 음악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병원이 단순한 의료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역 초등학교생들을 병원으로 초대하여, 병원을 이해시키는 견학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이용 욕구를 조사한다던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병원경영 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일체감 조성**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공동체 실현,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우리 병원이 실행하는 많은 실천 방법중의 몇 예에 불과하다. 향후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쉽지는 않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데 왕도란 있을 수 없다. 운명공동체로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 조직과 지역사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 병원이 진정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껏 받는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강 홍 구 팀장 / 사회사업팀



##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미** 시건대학의 로버트 킴 교수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으로 무사안일의 태도로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굽어 부스럼이 없게 하지는 것이며 이는 가장 소극적이며 모두가 공멸의 과정으로 가는 유독성 폐기물 더미라고 하였다. 둘째는 이보다는 괜찮은 선택으로 「적극적 탈출」이라고 했다. 당초의 문제를 팽개치고 약화시킨 채 책임없이 동료들을 남겨두고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는 옮겨 간 직장에서도 이전 직장에서도 같다고 하였다. 셋째, 마지막 선택은 직장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원 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에 개원 이래 원내, 원외로 가장 큰 시련이 있었다. 학내에는 대우의 몰락, 총장퇴진, 그리고 의료계도 과거 어느 시기에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시련이 있었다. 의료분업으로 인한 병원의 총과업과 줄지어 나오는 의료계의 압박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비 의사의 병원개설허용, 외국의 병원 진출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환경밖에는 없는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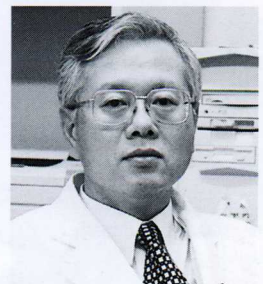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직장 내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교직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로버트 킴 박사가 이야기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떠나든지, 아니면 이 병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다. 이제는 교직원 여러분이 선택하고 개혁하고 희생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캐나다의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밴쿠버선(Vancouver Sun)은 「세계의 최고 일중독자, 한국인들(South Koreans In the World's Workholics)」이라는 제목아래 조사자료를 보도했다. 뉴욕의 시장 조사 회사인 Roper Starch Worldwide는 32개국을 선정하여 13-65세 사이의 1,000명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은 한국인은 주당 55.1시간을 일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보도는 한국인들은 가장 부지런하다는 칭찬보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인은 우수하며 부지런한데 왜 서구인들 보다 못사는가? 이에 대한 연구로 양승훈 교수(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국이 발전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우리가 협력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다. 협력하면 유리한 일들도 함께 손해를 보면서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사람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한국사람이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니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록습관이 배어있지를 않다. 글이나 문서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니 소리를 치고 시위를 한다. 셋째는 합리적인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를 수용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사상이 강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남에게 졌다는 점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헤쳐 나가기 위하여서는 교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 협력하는 길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개원 7주년을 맞는 아주대학교병원은 아직 역사가 짧지만 의료계를 리드하는 많은 의학도가 배출되는 배움의 터이며 미래를 위하여 연구하는 곳, 그리고 고통을 갖고 이 곳을 찾는 많은 지역사회의 환자들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홍창호 병원장



